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수빈	학번	20155277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1. 15(일) ~ 2. 5(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위치는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용가능 해서 편합니다. A동 식당에는 볶음 국수가 맛있고 UNION건물에는 한국인들이 식당을 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주문하면 됩니다. 스파이시캘리포니아롤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식당 옆쪽에 카페가 있는데 그린레몬그린티가 맛있습니다. 도서관 스타벅스 알바생이 잘생겼습니다. 생각보다 한국학생들이 많습니다. 학교가 넓고 깔끔했고 좋았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겨울에는 분반 없이 수업을 했습니다. 15명이었는데 강의실이 엄청 넓었습니다. 교제는 첫날 도착하면 주는데 크기가 커서 다들 백팩이나 에코백을 이용했습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총 3가지 주제가 있었고 활동으로는 팀별로 포스터 만들기, 그 주에 야외수업에서 인터뷰하기&조사하기 등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일기를 써야하고 선생님이 피드백해서 돌려줍니다. 숙제는 거의 매일 있었고 홈스테이 가족들과 인터뷰 등이 있었습니다. 야외수업 중에서 킬로나 친구들은 하키도 보고 스키도 타는데 비해서 저희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정표를 확인해보고 자기가 더 원하는 활동이 많은 곳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ctivity	아쿠아리움 - 해파리가 굉장히 많고 시간별로 이벤트가 있으니깐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스노우슈잉 - 옷 대여가 가능합니다. 청바지 입고 천운동화 신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랜빌 아일랜드 - 학교에서 교통편이 복잡하기 때문에 활동중에 한번 갈 때 꼼꼼히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밴쿠버뮤지엄 - 옆에 유명한 해변이 있습니다. / 컬링 - 진짜운동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여기서 입는 정도만 챙겨가면 되고 코트 입어도 안 추운 날씨였습니다. 우산 꼭 챙기고 신발은 천 운동화 하나 챙기면 후회합니다.
안전	눈이 많이 온 날이었는데 도로에 눈 치우는 트랙터들이 생각 보다 거칩니다. 그래서 인도 안쪽으로 가고 있었는데도 트랙터가 치우는 까만눈을 뒤집어 썼습니다. 만약에 거친소리가 들리면 옆에 집 정원 안쪽으로 꼭 피하세요.
숙소	홈스테이 - 신청서 쓸 때 자기 필요한 부분 꼼꼼하게 적으세요. 생각보다 샌드위치로 3주 힘듭니다. 그리고 위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이 많이 걸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집에 차가 있는 집이 편합니다. 저는 캐리어 끌고 대중교통타고 첫날 집가고 마지막날 공항가는데 힘들었습니다.
식사	아침은 홈스테이 가족들이 꼭꼭 챙겨주셨고 점심도 꼭꼭 챙겨주셨는데 가끔 먹고 싶은 거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학교 식당 가격은 7천원정도. 저녁은 보통 사먹었는데 DINE OUT 메뉴라고 보통 점심 3만원 저녁4만원에 코스 요리 할 수 있는데 꼭 이용해 보세요.
교통	구글맵이 정말 잘 알려줍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2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30만원	
간식	10만원	초콜렛, 술
입장권	20만원	그로우스 마운틴, 캐필라노,
기념품	10만원	하버타워, 빅토리아 섬
		아이스와인, 엽서 등
합계	19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하키경기가 밴쿠버캐넌이라고 팀이 있는데 꼭 보세요. 카드 수수료 은행수수료 등등해서 7만원 정도 내고 봤는데 진짜 후회없고 재미 있었습니다.

그로우스마운틴가면 꼭 썰매타보고 비버테일도넛 먹어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겨울에 가서 곰이 겨울잠 자는 걸 봤는데 아무튼 진짜 야생 곰 만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 학생 할인 안되고 5만원 정도 했습니다.

캐필라노 서스펜스 브릿지에 가시면 구간별로 스탬프를 찍어서 수수료증을 주는데 나이제한 없고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재미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거기 한국인들 많이 옴.

빅토리아 섬에 가면 정부청사건물 옆에 엠프레스호텔 있는데 차 마실 수 있으니까 잠깐 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6천원 정도

그랜빌 아일랜드가면 피쉬앤칩스 먹는데 종류가 3가지 있습니다. 할리붓으로 먹으세요.

타코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가 술이 진짜 맛있습니다. 스팀웍스라고 자체 맥주 브랜드가 있는데 7천원 정도로 4가지 맛 시음해 볼 수 있으니까 꼭 이용하세요. 앰프라이라고 약간 당근 고구마 튀김 같은 건데 밴쿠버 음식 중에 하나니까 푸틴과 함께 꼭 먹어보세요. 그리고 아이스 와인은 화이트가 훨씬 맛있고 INN으로 시작하는 뭐가 있었는데 은색 종이박스였고 되게 그 중에서 없어보이는데 달고 맛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재미있었고 공기가 진짜 좋고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브랜드물건들이 한국보다 저렴하고 맛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꼭 다 먹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코드



하키경기



그로우스 마운틴



차이나타운 새해행사



빅토리아 섬



스팀웍스